

# 시온 주보

제2448호

2023년 5월 21일(가해)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_jubo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xhGxjBxb  
유튜브 www.youtube.com/@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편의를 바코드



예수님의 일생 | 이남규 루카, 61x450cm, 레드케임 기법, 1989년, 논현동성당

## 입당송 | 사도 1,11 참조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 제1독서 | 사도 1,1-11

### 화답송 | 시편 47(46),2-3.6-7.8-9(◎ 6)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또는 ◎ 알렐루야.)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 제2독서 | 에페 1,17-23

### 복음환호송 | 마태 28,19.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 복음 | 마태 28,16-20

### 영성체송 | 마태 28,20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조승현 베드로 신부 |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보도주간

## 온 누리에 기쁜 소식을 보내요

하늘 가까이 가고 싶어 겁도 없이 산에 올랐다가 ‘괜한 일을 했다.’는 자괴감만 얻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하늘은 고사하고 산 정상도 밟아보지 못한 채 소위 ‘저질체력’만 확인한 것입니다. 비록 하늘 가까이 오르지 못했지만, 언제 어디서나 고개만 들면 눈앞에 펼쳐지는 곳이 하늘입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데 쉽게 가지 못하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에 가는 것을 ‘정복’이라는 말로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복’ 이전에 인간은 하늘에 오르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인간은 달에서 절구질하는 토끼를 만났습니다. 별들을 연결해 전사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로 오작교의 러브 스토리를 들으며 인간은 저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과학적 사실과는 다르겠지만, 인간은 몸이 아닌 ‘마음’으로 이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보니 오직 인간만이 땅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다짐도 하고, 먼저 떠나보낸 이를 그리워하며 하늘에 기도를 올립니다. 빈 두 주먹을 꼭 쥐 청년은 하늘에 맹세도 합니다. 그런 인간이 가여워서인지 이천 년 전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말씀은 다시 하늘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에 있으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땅만이 아닌 온 누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는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넘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아 시공간을 넘어 온 누리에 복음을 널리 전하라고 교회는 홍보 주일을 보냅니다.

홍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바티칸에 계신 교황님 뉴스를 접한 후 기도하고, 병상에 계신 환우분은 방송 미사를 통해 위로를 받고, 출근길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의 에너지를 얻는 것 말입니다. 비록 우리 각자 다른 시간과 공간에 있지만,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마음속에서 감동과 웃음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홍보입니다.

이제 홍보를 시작합시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방송국이니 누구든지 홍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피디이고 작가이며 기자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기쁜 소식이 넘치는 밝은 세상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죽음과 부활을 거쳐 승천에 이르는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스테인드글라스 창에 표현된 그러한 예수님의 일생은,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고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주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짐해 봅니다.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말씀의 이삭



이정민 세실리아 | MBC아나운서

## 나를 키운 아이들

제겐 사랑스럽고 듬직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 다 생후 50일 전후로 세례를 받았고, 다윗과 다니엘이라는 세례명을 가진 주님의 자녀로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 무척이나 질문이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종알종알 쉴 없이 질문을 해대는 탓에 가끔은 10초 만이라도 침묵게임을 하자고 부탁하곤 했었지요. 그렇게 질문이 많던 다윗과 다니엘은 아기 때부터 성당을 다녀서인지 하느님과 종교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습니다.

큰 아이 다윗이 네살 때였습니다. 한창 로봇과 공룡을 좋아해 늘 악당과 싸우는 역할 놀이에 빠져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놀다 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주님 있잖아. 주님은 모르는 게 없고 힘도 제일 세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악당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냥 죽은 거야?” 표현이 참 어린이스러웠지만 아이가 궁금한 것은 ‘주님은 전지전능한 존재인데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냐.’였을 겁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쩌면 저도 잘 몰라서 답을 망설였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놓고 가슴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이렇게 답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님은 악당을 물리치지 못 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야.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 주신 건데,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켜주려고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야.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고. 누군가를 무척 많이 사랑하면 지켜주고 싶은 거잖아. 엄마가 우리 아가를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말야.” 그 순간 저는 정답을 떠나 아이에게,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주님이

든든한 백으로 계시니 그저 감사하고 그 받은 사랑을 주변에 나누면 된다는 말까지 더하고 싶었습니다.

또 한번은 작은 아이 다니엘이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언제 죽어? 우리는 다 죽으면 하느님 나라에서 만나는 거 맞아? 아무도 보고 온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제 죽음의 시점을 묻는 바람에 웃음이 터졌지만 우리는 그 주제로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가치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대화들을 되돌아보니 오히려 아이들이 제 신앙을 키웠단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던진 질문들은 믿음의 핵심이었고 제겐 두고두고 신앙의 화두가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천진난만한 질문을 던지던 다윗과 다니엘은 어느덧 초등학교 고학년 형들이 돼 이젠 둘이 나란히 제단에서 복사를 서곤 하는데요. 이젠 제가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돌직구처럼 핵심을 물었던 아이들이 이젠 정곡을 찌르는 답변을 해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기도, 단식, 자선이라는 무기를 통해, 나이가 성만년 은총의 선물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과 전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컷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성모 성월'

- 프란치스코 교황님, 2022년 성모 성월 마지막 날, 평화를 위한 묵주기도 봉헌 모임에서-



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1 : 예수님의 생각은?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 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열 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1코린 15,3-5) 신앙고백의 핵심인 이 케리그마는, 코린토 1서가 쓰여진 54-55년 경 훨씬 이전부터 이미 교회 안에서 사용되던 고백이라고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고백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로마 5,8; 갈라 3,13; 에페 5,2; 1요한 3,16) 그리고 갈라티아서에는 이보다 더 강한 “나를 위하여”(2,20)라는 표현도 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선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는지 예수님 자신에게 여쭙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따지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만약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다면, 서간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고백은 그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다행히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죽음을 미리 아셨고 그 의미에 관한 설명도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는 세 번의 수난 예고(마르 8,31-33; 9,31; 10,33-34),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살해된 목자와 흠어진 양떼 비유(마태 26,31), 당신이 마실 잔과 받을 세례(마태 10,38) 등등에서 당신이 폭력적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 당신 죽음을 미리 아셨다면, 그런 죽음의 의미도 생각하셨지요?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몇 군데서 볼 수 있는데,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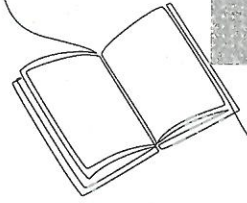
적인 것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마태 26,26-29; 마르 14,22-25; 루카 22,15-20; 1코린 11,23-25) 약간의 표현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 죽음을 ‘많은 사람을 위한’, ‘너희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공통적입니다.

이것은 특히 마르 10,45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여기에서 “몸값”은 희랍어로는 ‘퀴트론(λυτρον)’인데, 이는 노예 해방을 위한 몸값, 사형수의 목숨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죽음을 ‘많은 이들을 위한,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한 속죄’로 이해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한편 핀트가 약간 벗어나긴 하지만, 마르 10,45의 말씀의 맥락은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각기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는지 물으시고, 그들이 그렇다고 하자, 왼편이든 오른편이든 그 자리에 앉는 일은 당신이 허락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이 두 사도를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한 마디로 제자들은 권력을 누가 더 가질 것인지에 관심이 있지요. 속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제자들을 향한 답입니다.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 최초의 순교자 스테파노의 체포 (사도 6,8-15)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그리스도 교회는 하느님 말씀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의 피로 설립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스테파노의 이야기를 통해 순교자의 헌신으로 구축된 그리스도 교회를 보여줍니다.

스테파노라는 인물은 식탁의 일곱 봉사자 중 한 명으로, 그 이름에는 ‘승리의 화관’, ‘월계관’,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테파노는 식탁의 봉사자로 뽑혔지만, 사도행전 8장에 나올 필리포스와 마찬가지로 ‘말씀의 봉사’도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된 후에, 여러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6,9 참조) 논쟁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던 스테파노는 세 가지 죄목으로 잡혀갑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곳(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했으며, 세 번째는 예수께서 성전을 허물고 모세가 물려준 관습들을 고치시리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반대자들이 예수님께 뒤집어씌운 죄목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느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렀다는 죄목으로 최고의회에서 사형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또 다시 반대자들이 택한 방식은 중상모략입니다.

하느님은 진리이십니다. 이와 반대로 악마는 진리를 왜곡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뱀은 하와에게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3,1)라고 말하며 하느님

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분명히 하느님은 하와에게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느님과 인간의 생명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전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습니다.”(로마 5,12) 결국 진리를 거부하는 악마와 죄는 생명이 아닌 죽음을 가져왔고, 이와 반대로 진리는 생명을 줍니다. 이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드러났으며, 최고의회에 잡혀간 스테파노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람들에게 잡혀 최고의회에 선 스테파노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처럼”(6,15) 보였다고 전해줍니다. 루카는 복음서에서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을 받는 이들은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루카 20,35-36)고 전합니다. 결국 천사의 얼굴을 한 스테파노는 바로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또한 스테파노의 모습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복음 선포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복음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복음 선포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진리는 생명을 주고 거짓은 죽음을 가져온다는 믿음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고자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 우리의 신발을 벗고(Taking Off Our Shoes): 아시아의 시노달리타스 여정

양주열 베드로 신부 | 통합사목연구소 소장, 시노드 교구 실무자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는 다양한 문화 안에서 수많은 언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아시아에서도 대륙별 시노드 단계를 마무리하고 ‘최종문서’를 완성했습니다. ‘최종문서’에는 시노드 여정이 교회를 위한 은총과 치유의 과정이었다는 고백이 담겼습니다. 또한 시노드 교회는 포용의 정신을 갖춘 피난처이자, 하느님의 영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시노드를 통해,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는 공간으로 교회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례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며 하느님을 교회 안에서 만난다고 ‘최종문서’는 고백합니다.

이번 아시아 시노달리타스 여정의 울림은 여러 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성령과 함께, 서로 경청하는 영적 여정을 통하여 은총, 만남, 변모의 기쁨을 체험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서로 존중하고 돌보는 우정의 질이 향상됨을 느꼈다는 것도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재정, 권위적 태도, 성 남용, 소수자와 이주민과 여성의 소외, 젊은 이들의 부재에 대한 아시아 교회의 취약성에 대한 재평가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포용적인 교회를 위한 새로운 선교 비전과 상호주의 관계를 수용하라는 부르심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교회 안에서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가는 긴장감, 공동 식별과 의사 결정 과정 안에서 협력적 책임의 부족함, 사제에 대한 지나친 비판과 추문에 따른 성소 감소, 가부장적인 구조와 문화,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부재하고 젊은이들 안에 교회의 삶의 부족한 점, 가난한 이들을 교회의 삶과 사명에 통합시키지 못함, 종교의 정치화로 인한 신앙 실천의 갈등, 성직주의 등의 긴장감이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최종 문서는 아시아 주교회의 총회 차원에서 논의된 생태 위기, 사회적·영적 자원의 공유, 젊은이들을 위한

성소 식별, 다문화 가정의 돌봄, 가난과 부패와 분쟁, 박해 받는 아시아 토착민, 실향민, 학대를 당하는 이들과 주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주교시노드에서 논의할 우선적 주제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양성 교육, 소외되고 버려진 이들을 포용하고 환대하는 교회가 되도록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 아시아 교회의 맥락에서 서로에게 복음을 속삭이듯 선포하는 방법과 인격적인 만남과 경험에 기초한 적극적 신앙 실천, 재정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투명성과 책임성, 아시아 민족의 마음을 반영하고 감동시키는 기도와 예배,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고 나아가 치유하는 환경 보호도 우선적 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아시아 대륙의 시노드 여정을 ‘신발을 벗는’ 문화를 통해 그려냈습니다. 아시아 문화 안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존경의 표시이며, 거룩함에 대한 인식입니다. 모든 이를 환영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벗어내는 태도인 것입니다. ‘신발을 벗음’이라는 표현은 겸손과 희망으로 함께 여정에 나아가는 아시아 교회의 경험을 잘 표현합니다.

최종문서의 결론에서는 시노달리타스 여정을 통해 공동 식별과 영적 대화가 교회의 삶과 사명의 일부가 되도록 노력하고, 상호 관계성 안에서 교회의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고, 세계주교시노드 1회기 이후에도 소지역 시노드 대화 기회의 필요를 제안하였습니다.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는 하느님 백성의 참여를 통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노드 여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종 문서는 서울대교구 시노드 홈페이지에 곧 업로드 예정입니다.



# 사람이 살아야 하는 집



황원옥 마리아에스텔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수녀·가톨릭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 소임을 하다 보면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가끔 고속버스나 열차로 이동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지역들의 특성을 보게 됩니다. 건축적으로나 미학적으로 잘 정비된 도시와 작지만 집집마다 감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는 정겨운 마을을 지나면서,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인간의 지혜와 드넓은 자연이 공존해 있는 모습에 잠시 감사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마치 누군가 빈 공간을 시기라도 하는 듯 앞다투어 채워지는 빼곡한 아파트와 고층 빌딩들이 많이 보입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집 없는 사람은 왜 이리 많을까? 저 많은 건물들은 언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사

람들로 가득 차서 웃음꽃 피는 행복한 건물이 될까? 아니면 과도한 비용으로 집주인을 못 찾은 우울한 회색 건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마주치는 주거 생활의 불편한 진실이자 현실의 장입니다. 집은 사람이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단지 돈으로 산 건물이 아니라, 일생을 사는 동안 육신과 마음의 안식을 얻으며, 고단한 일상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로 온전히 그 공간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렇듯이 집은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간임에도 인간의 욕심은 집을 재산이나 축적하고 투기하는 목적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집 없는 많은 사람들의 권리와 기회마저 빼

앗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내 집 한 채를 얻기 위해 평생 고단함과 치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차별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이 계절에 기분 좋은 별을 찌며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작지만 마음 편한 나만의 공간이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유행에 따라 형태가 변하고 가진 만큼 평수가 결정되는 집이 아니어도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이 넘쳐나는 꿈의 골목들이 가득 들어서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 어두운 바이러스보다 이제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날아들어 차별 없고 격의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신학자는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대해, 하느님이 무엇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서심으로써 자기 이외의 것이 존재의 일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창조는 신의 무조건적인 자기-확장이 아니라 자기-축소, 자기-포기, 자기-부정이었다고 할 때, 이 세상은 은혜로운 무상성 (gratuitousness)에 기초해야 함을 감히 외쳐봅니다.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내어준 공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차익은 먼 훗날 하느님께 보상받는 멋진 선물이 되지 않을까 또한 생각해 봅니다.



**오늘(5월 21일)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제57차 '홍보 주일'입니다**

교회 도서 출판과 신문 방송에 더 깊은 관심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들의 발전을 위해 홍보 주일 2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홍보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 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제18회 '교육 주간' 안내**

2023년 교육 주간은 5월 22일(월)~28일(주일)입니다. 이 기간에는 가톨릭 교육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합니다. '교육 주간'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미사**

교구 주교평의회는 2014년 광화문에서의 시복 미사 이후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미사를 매년 5월 29일,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에서 봉헌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29일이 월요일인 관계로 사목적 배려 안에 27일 토요일로 앞당겨 총대리 손희송 주교님과 교구 사제단의 공동 집전으로 기념 미사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때, 곳: 5월 27일(토) 오전 11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B3 콘솔레이션 홀)  
 집전: 손희송 총대리 주교(순교자현양위원회 위원장) 및 교구 사제단 / 문의: 02)3147-2402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9년 5월 23일 이영일 베네딕토 신부(28세)
- 1979년 5월 25일 박일규 안드레아 신부(82세)
- 1984년 5월 27일 이선표 요셉 신부(37세)
- 2005년 5월 27일 이봉우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71세)
- 2020년 5월 24일 최선용 야고보 신부(77세)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부처님오신날 메시지**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대교구 온 신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축하드립니다. 불교계는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 '희망과 치유의 등'을 밝히고 온 국민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셨습니다. 이번 연등회를 앞두고 광화문에 밝혀진 정암사 수마노탑 봉축등이 다시 한번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바랍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의 봉축포어인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이 염원하는 바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국민들의 마음에 치유와 위안,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모든 소외된 이웃에게도 물들길 기원하며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정신으로 상생하고 소통하며 함께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기원합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교구청 알림**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6월1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이현규 신부(칠레 선교)  
 문의: 02)727-2407, 2409

**향심기도 소개강의**

대상: 누구나 / 지도: 이승구 신부  
 때: 6월7일부터 매주(수)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A313호(구 계성여고)  
 회비: 1만원(4회) / 문의: 010-4565-8898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주제: 우리 이웃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세요  
 때, 곳: 5월25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이주사목위원회 / 문의: 02)924-9970

**주교좌 명동대성당 혼인미사 성가단 단원 모집**

모집 파트: 테너, 베이스 약간명  
 지원 자격: ①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혹은 예비신자) ② 다음의 성가단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③ 만 26세 이하의 현재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문의: 02)774-1784 / 자세한 문의는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http://www.mdsd.or.kr)) 참조

**환경사목위원회 생태영성연구소 축복식 및 출판기념회**

때, 곳: 6월3일(토) 16시~18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책제목: 토마스 베리 평전 생태사상의 선구자  
 문의: 02)727-2278 환경사목위원회

**서울대교구 하루 피정**

주제: 여전히 나는 사랑스런 존재(자존감 되찾기)  
 때: 6월10일 13시30분~17시 / 지도: 문종원 신부  
 곳: 명동 영성센터 302호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날 분당 갖기) 미사  
 때, 곳: 1370차 미사 5월23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당: 평양교구 안주 분당, 정주 분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핵분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 후원회 미사 / 문의: 02)727-2415  
 때, 곳: 5월26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최문숙 개인전: 1전시실  
 백승주 개인전: 2전시실  
 석지랑 '다시 부르는 이름들': 3전시실  
 전시일정: 5월17일(수)~25일(목)

**2023년 사목국 성서못자리 성서특강**

주제: '요한 묵시록의 예수 그리스도'  
 때: 6월26일(월) 10시30분~15시20분  
 곳: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강의실(해화동)  
 강사: 허규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접수: 5월17일(수) 10시부터,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http://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선착순 400명) / 회비: 4만원(점심식사 제공)  
 문의: 02)727-2379 사목국 성서못자리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여름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5월2일(화)~24일(수) / 3개월 수업(6월~8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      |         |  |
|------|---------|--|
| 여름학기 | 설기전문 과정 |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
|      | 양상블     | 그레고리오성가(남·예)·성악(남·예)·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



## 인준단체 알림

### 모임

**혼인성소(새혼 포함)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3박4일)  
 회비: 75만원·115만원 / 문의: 010-3645-9028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6월1일~30일 / 문의: 010-4198-7970

**6월 낙태 후 화해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때, 곳: 6월2일(금)~4일(일), 명상의 집(우이동)  
 회비 없음 / 문의: 010-6637-1366 고 마르타 수녀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청년 성지순례**  
 대상: 35세 이하 미혼 남녀 / 문의: 010-6608-3217  
 때, 곳: 5월27일(토) 오전 9시, 서울대학교구 내 성지

**평화의 모후 청년 셀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하느님 안에서 재혼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피정**  
 때, 곳: 6월3일(토)~4일(일), 성 앙베르 피정센터  
 문의: 010-5646-6594 ICPE 선교회

**지리산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     |                       |
|-----|-----------------------|
| 피아골 | 6월23일~24일, 7월21일~22일  |
| 전주  | 전동성당, 천호성지, 초남이(중 1곳) |

**성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 문의: 010-3340-0201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                                  |
|------------------|----------------------------------|
| 호소단식             | 5월25일(목)~28일(일), 6월22일(목)~25일(일) |
| 하늘, 바람, 내(힐링 피정) | 6월9일(금)~11일(일)                   |

**국악성가연구소 월레기도·해외 성지순례**

|         |  |          |
|---------|--|----------|
| 월레기도    | 6월5일(월) 14시                            | 문의: 02)  |
| 해외 성지순례 | 9월8일~22일(14박15일), 터키-이스라엘 / 인솔: 강수근 신부 | 558-2004 |

**교구별 성지순례·왜관수도원 전례·탐방**

출발: 서울 명동(대형 버스) /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들(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       |  |
|-------|--|
| 순례    | 7월1일~5일(울릉도·독도·왜관), 8월26일~29일(부산 8곳·마산 6곳), 9월9일~11일(대구 17곳) |
| 수도원 외 | 7월22일~24일(춘천 15곳)  |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             |   |
|-------------|---|
| 자연순례        | 6월3일~5일, 7월21일~23일                                    |
| 성지순례(추자도)   | 5월27일~30일, 6월10일~13일, 6월17일~20일, 9월10일~13일, 10월7일~10일 |
| 여름특별 피정(우도) | 7월29일~31일, 8월4일~6일                                    |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메주고리 음악과 함께 음악 피정 / 담당: 김중국 신부  
 강사: 포도나무찬미선교단 / 010-5514-4077 회장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성체신심회에 초대합니다** / 문의: 010-5818-8431

주제: 성체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  
 때, 곳: 매월 첫번째(토) 오전 10시, 도미니코수도회(주최, 강북구 수유동) / 담당: 홍 이시아 신부

**호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6월23일~26일·7월7일~10일·7월28일~31일·8월4일~7일·8월18일~21일, 성 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제주 성 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들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5월29일~31일·6월4일~6일·6월10일~12일·6월18일~20일·6월23일~25일·7월22일~24일·8월5일~8일, 여름특별 피정(우도) 7월28일~30일·8월1일~3일, 추자도성지 포함 자연순례 7월1일~4일·7월7일~10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 교육

**미사 반주와 전례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문의: 010-4964-5274 제14동작지구(혹석동)오르간교육

**수제 목주 조각 기초부터 완성까지(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헬리어)**

때, 곳: 7월부터 1년간(주1회 2시간), Zoom  
 회비: 3개월 30만원 / 010-4598-6912 프란치스코회  
 (수) 신약·구약 19시30분 (목) 구약 10시

**미국 여름국제캠프·정규입학 학생 모집**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학교법인  
 여름국제캠프 초3~중2 / 남: 시카고, 여: 보스턴  
 정규입학 초5~고2 / 1년 이상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목요일반 6월1일~15일 13시30분~16시30분 회비:  
 수요일반 6월14일~28일 13시30분~16시30분 15만원

**2023학년도 후기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6월12일(월)~23일(금) / 전형일: 7월14일(금)  
 문의: 02)740-9704(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석사 과정(5학기) 오르간, 합창지휘, 작곡(CCM 작곡 포함)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기억 치유를 통한 새로운 나와의 여행**

강사: 박예진 박사  
 때, 곳: 6월16일(금)·17일(토) 10시~18시, 성바로 수도회 본원(미아동) 바로로센터(주최) / 회비: 18만원  
 문의(접수): 010-2557-1361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에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 과정**

때: 6월7일·14일·21일·28일(수) 14시~16시 / 회비: 12만원  
 곳: 씨튼영성센터(서울) / 지도: 허성준 신부  
 문의(접수): 010-4731-2468 최안나(왜관 성 베네딕도회)

**새천년복음화학교 수료특강** / 문의: 02)753-8765

주제: 기도는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말씀: 조성풍 신부(서울대학교구 사목국장)  
 때, 곳: 6월11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제1차 프라도 영성 배우터 수강생 모집**

대상: 프라도 창립자 슈브리에 신부님의 영성을 알고 싶은 신자 / 문의: 02)853-1105, 010-9751-1758 한국프라도사제회  
 때, 곳: 6월10일~11월11일 둘째주(토) 14시~15시 30분, 명동대성당 내 영성센터 B301호(6개월)

###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재속 맨발 가르멜회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회원 모집**

대상: 만 55세 이하 건전성사 받은 분  
 첫모임: 6월12일 / 문의: 010-9836-8998

**그린합창단 남성단원 모집**

연습: (수) 19시,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오디션: 가톨릭성가 1곡 / 문의: 010-4171-3405 단장  
 창단 30주년 기념연주회 준비중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성가봉사를 하고자하는 20~45세 남녀 가톨릭 신자 / 명동대성당 홈페이지(PC버전) 이메일 접수  
 때: 6월17일(토) 13시30분 / 문의: 010-3211-5195 (문자)

**아퀴나스 합창단 단원 모집**

아퀴나스 합창단(67년 창단·교구 소속 평신도 단체 / 담당 최호영 신부)이 30, 40대 새단원(각 파트 약 간명)을 찾습니다 / 오디션: 자유곡(악보 지참)  
 문의: 010-2778-2704 총무

### 미사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월레미사**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집전: 송영호 신부 / 문의: 02)749-4596  
 때, 곳: 5월29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5월24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살레시오와 꿈 월례미사** / 문의: 02)828-3522  
 때: 5월22일(월) 11시 / 지도: 유명일 신부  
 곳: 살레시오회 관구관(신길동) 4층

**미래사목연구원 후원회 미사**  
 때, 곳: 5월23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례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때, 곳: 5월26일(금) 11시30분, 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월례미사** / 문의: 02)548-3623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  
 때, 곳: 매일 첫째주(토) 10시30분(사도의 모후)·15시(디모테오), 성바오로수도회(논현동, 북카페 레벤)

**웅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5월22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제: 박수환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최광희 신부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안내**

**명동성당 1898광장 내 병의원 임차인 모집**  
 대상: 병의원으로 직접운영 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  
 이메일(c-center@catholic.or.kr) 및 전화(02-727-2306, 가톨릭회관 관리실) 접수 / 6월7일까지 접수(추후심사 예정)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릿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은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http://www.jjscen.or.kr)  
 전문심리상담: 개인심리치료, 가족심리치료(정서불안·우울·분노·소통과 관계의 어려움), 종합심리검사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히 요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도박·인터넷 게임 등) 중점 치료,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http://www.karf.co.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청소년 언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종합심리검사**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특화기관입니다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내용: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 문의: 02)2051-3743  
 곳: 천주교 살레시오 수도회(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37)  
 회비: 언어상담 회당 5천원·매체상담 회당 3만 원·종합심리검사 15만원(상담은 20회기 선납, 정부지원 취약계층·시설거주 청소년 무료 지원)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        |                             |
|--------|-----------------------------|
| 개인심리치료 |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
| 가족심리치료 | 부부, 가족(사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동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제: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5월30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1급) / 문의: 010-9146-7654

**직원모집**

**음성꽃동네노인요양원(구원의집) 요양보호사 모집**  
 기숙사 사용 가능 / 문의: 043)879-0225-0238  
 홈페이지: [www.kkotnoin.or.kr](http://www.kkotnoin.or.kr)

**동작동성당 주방근무자 모집** / 문의: 02)595-6961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로 성실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5월31일(수)까지 우편·방문(우 06995,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35길 46 동작동성당) 및 이메일([mschoi6511@seoul.catholic.kr](mailto:mschoi6511@seoul.catholic.kr)) 접수

**서울대교구청 전산정보실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개발언어 JAVA·C#(닷넷), DB관련 PostgreSQL·MSSQL 업무 가능한 분  
 분야: 교구 사무원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구술시험, 3차 최종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5월28일(일)까지 이메일([aoina@seoul.catholic.kr](mailto:aoina@seoul.catholic.kr)) 접수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http://www.catholicbook.kr))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mailto:hr1886@catholicbook.kr))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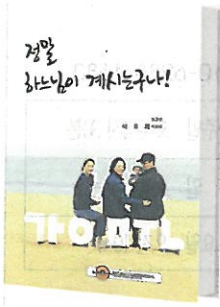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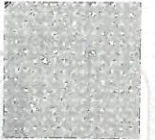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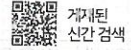
|      |                                  |
|------|----------------------------------|
| 편집국  | 해외도서 출판기획 및 해외 저작권 담당자 / 영어능력 필수 |
| 영업본부 | 담당 지역 도서, 성물 영업자 / 운전 가능자        |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회에서 인가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 수도회 성소모임           | 때                | 곳              | 문의                         |
|--------------------|------------------|----------------|----------------------------|
|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 매일 첫째주(일) 12시30분 | 수녀원(평창동)       | 010-8852-9817 황 수산나 수녀     |
| 마리아의 종 수녀회         | 6월26일(월)~28일(수)  | 분원(돈암동) 카사 마리아 | 010-2675-8221              |
| 서울 가르멜 여자 수도원      | 매일 둘째주(일) 14시    | 수도원            | 02)902-1489                |
|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 5월28일(일) 9시      | 분원(장흥동)        | 010-8353-2323 (문자 문의)      |
|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 수시               | 수녀원(청주)        | 043)295-5940               |
| 작은예수수녀회            | 수시               | 수녀원(군자동)       | 010-8939-7970              |
| 천주교서울교구천주교회        | 수시               | 선교회(한남동)       | 010-2749-4596, 02)749-4596 |
| 한국외방선교회            | 6월4일(일) 11시      | 본부(성북동)        | 010-8715-2846              |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정말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이유희 지음  
비자아이 | 220쪽 | 1만5천원  
문의: 02)2285-2710

“기쁨이 없다면 행복도 없다.” 이미 하느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갖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모든 것이 부족해서 불행한 사람, 실망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특히 냉담 중인 교우들에게 하느님을 만난 하얀 기쁨을 전해주고 싶은 소망에서 엮은 책이다.



신간

서로 간의 사랑

플로랑스 질레 지음  
도서출판 벽난로 | 196쪽 | 1만원  
문의: 02)572-1942

2부로 구성된 이 책은 복음의 진주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그리스도교 정신의 핵심인 서로 간의 사랑의 중요성과 이를 실천함으로써 체험하게 되는 풍요로운 결실을 설명한다.



신간

천국을 여행하면서

피비오차르디 지음  
도서출판 벽난로 | 112쪽 | 9천원  
문의: 02)572-1943

포콜라레 운동의 창설자이자 현대 영성가로 널리 알려진 끼아라 루빅과 그의 첫 동료들의 신비적 체험에 대하여 저자는 단순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설명과 역사적 사실들이 풍부한 이 책을 통하여 천국의 향기를 즐기게 한다.



신간

초급 라틴어

허창덕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351쪽 | 1만원  
문의: 02)740-9718

이 책은 라틴어 입문을 위한 기본 문법책이다. 가장 기초가 되는 라틴어 알파벳, 발음법 등 문법에 해당되는 범례들을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고, 부록으로 단어집과 변화표, 활용표를 실고 있다. 라틴어를 처음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도 의욕을 갖고 독학도 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있다.

가톨릭 OTT  
cpbc 플러스

가톨릭 콘텐츠의 모든 것!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손쉽게, 내 삶에 신앙 더하기+

국내·외 천주교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콘텐츠의 모든 것이 담긴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동안 가톨릭 콘텐츠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이용하기 불편하셨나요? 이제, 가톨릭 콘텐츠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cpbc 플러스를 통해 무료로 수십만 개의 영상, 오디오, 뉴스 그리고 영화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톨릭평화방송 TV, 라디오, 신문 등을 있는 또 하나의 가톨릭 플랫폼, cpbc플러스 지금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 이용해 보세요.

VOD

영화

A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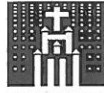
뉴스

라이브러리

cpbc플러스 다운로드    iOS용    안드로이드용



제2281(성 바오로 사도 희심 축일)



# 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로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       |   |         |                      |
|-------|---|---------|----------------------|
| 주일 미사 | •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유 아 세 례 |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       | • 주 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 혼 인 면 담 |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
| 평일 미사 | •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 성모신심미사  |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 남성 울뜨레아

일시 : 5월 21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 울뜨레아

일시 : 5월 23일(화) 10시 미사 후 304호

◎ 여성 구·반장 야외행사

일시 : 5월 25일(목) 오전 8시 출발  
장소 : 남이섬

◎ 병자영성체

일시 : 5월 26일(금) 10시 미사 후

◎ 5월 27일(토) 오후 12시 혼배가 있습니다.

◎ 초등부 부활 은총 잔치

일시 : 5월 27일(토) 오후 3시 ~ 오후 6시  
장소 : 성당 마당, 지하 식당

◎ 5월 27일(토)은 혼배와 초등부 부활 은총 잔치 행사관계로 오전 11시~오후 6시까지 성당 마당에 차량 출입을 통제합니다.

◎ 성모 신심 미사 : 6월 3일(토) 오전 10시

◎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

일시 : 6월 4일(주일) 11시 교중미사

◎ 남성총구역 족구대회

일시 : 6월 10일(토) 오후 2시  
문의 : 남성총구역장 (010-4913-1158)  
※ 많은 형제님들의 참여를 희망해 봅니다.  
장소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문화학교 6월~8월 학생모집(주일학교)

수강과목 : 바이올린, 통기타/우쿨렐레, 미술, 영어  
접수기간 : 재접수 - 5월 15일(월)~19일(금)  
신규접수 - 5월 20일(토)~24일(수)

개강 : 6월 1일부터 / 매주 토요일 수업

접수 및 문의 :

카카오채널 「연회동성당문화학교」

친구추가 후 등록 / QR코드 →



◎ 청년 한푸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문의 : 미카엘라 단장 (010-3160-2988)

◎ 청년 전례단

20 예그리나 / 30 프리모 신입단원 모집

문의 : 전례단장 (010-9526-3217)

◎ 오늘은 홍보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5. 14)

| 총세대   | 책정세대<br>(책정율)  | 납부세대<br>(납부율)  | 2022년<br>책정율 | 2022년<br>납부율 |
|-------|----------------|----------------|--------------|--------------|
| 2,079 | 739<br>(35.6%) | 700<br>(33.7%) | 43.8%        | 41.8%        |

|         |      |               |
|---------|------|---------------|
|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헌금 (5월 8일~14일)

|     |      |     |      |
|-----|------|-----|------|
| 양경남 | 오만원  | 이지만 | 오만원  |
| 조우현 | 일십만원 | 김해인 | 일십만원 |
| 허주성 | 이십만원 | 우성택 | 오십만원 |
| 박명숙 | 오만원  | 이명숙 | 오십만원 |
| 익명  |      |     | 오십만원 |

◎ 우리들의 정성 (부활 제6주일)

|            |            |
|------------|------------|
| 교 무 금      | 7,600,000원 |
| 주일헌금       | 6,024,000원 |
| 성모의 밤 꽃봉헌금 | 2,720,000원 |

|    |     |    |               |    |               |    |     |
|----|-----|----|---------------|----|---------------|----|-----|
| 입당 | 141 | 봉헌 | 138, 219, 512 | 성체 | 498, 496, 159 | 파견 | 137 |
|----|-----|----|---------------|----|---------------|----|-----|

환 호 소 리 가 운 데 하 느 님 이 오 르 신 다 -  
나 팔 소 리 가 운 데 - 주 님 이 오 르 신 다